

전통 과학과 기술 연구를 위한 정문화 사업의 필요성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 소장, 과학기술사 전공
sunamgol@hanmail.net

- I. 머리말
- II. 엉뚱한 『임원경제지』 선본으로 인한 문제
- III. 표절 증거 노출과 진본 진위 논란
- IV. 정문화가 시급한 과학과 기술 문헌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 유자들에게는 책을 교감하는 학문(讎書之學)이 전혀 없어 한 줄을 간행해도 오류가 수없이 나온다. [...] 이럴 정도면 책이 없는 거나 진배없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¹⁾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20대에 쓴 서간에 나오는 글이다.²⁾ 이 글에서 당대 유학자들이 교감을 학문적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풍토를 비판했다. 서유구가 말하는 교감은 지금의 정본화이다. 표점만 찍지 않았을 뿐, 여러 사본이나 인쇄본을 대조하고 원출전과 비교하여 텍스트의 오류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전통 과학기술 문헌은 성격상 사물의 묘사나 기구 제작 및 작동법, 제약 및 시술법 및 수치 계산 등이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이런 문헌은 이전의 지식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완성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원문을 확보하기 위한 저본(底本, 원본)이나 선본(善本) 선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저본을 찾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저본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교감본(校勘本)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적 구두점인 표점을 표기하여 확정된 교감본이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독해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유구의 저술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필사본들의 현황과 성격을 살피면서 선본을 잘못 고르고 정본화를 하지 않아 생기는 논문 연구와 번역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본화에 대한 불감증이 번역 표절 및 진본 진위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 전통 과학과 기술 문헌의 현황과 정본화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1) “我東儒者苦無讎書之學，板印一行，訛舛百出。[...] 若此者與無書等，不可不慎也。”《楓石全集》『楓石鼓篋集』 권3 「書」 ‘上仲父明舉先生論四書輯釋書’(《韓國文集叢刊》, 288, 236쪽).

2) 이 글의 『임원경제지』 관련 부분은 대부분 정명현, 「『임원경제지』 번역은 교감이 생명이다」,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91-114쪽; 정명현, 2부 제2장 「필사본들의 서지학적 검토」, 앞의 책, 354-383쪽의 내용을 반영했다.

II. 엉뚱한 『임원경제지』 선본으로 인한 문제

『임원경제지』는 1806년에서 1845년 이전까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술된 실용백과사전으로, 향촌에 거주하는 사대부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총 16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다.³⁾ 교감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원경제지』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박물학적 성격까지 가미된 『임원경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텍스트가 절실하다. 자주 부딪히는 생경한 용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문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오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임원경제지』는 아직까지 정보화는커녕 저본조차도 제대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아니 저본이 잘못 정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존 『임원경제지』 사본은 크게 5종류다.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大阪府立中之島)도서관 소장본(이하 오사카본, 3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하 규장각본, 52책),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이하 고대본, 49책), 연세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이하 연대본, 1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하 국립본, 9책)⁴⁾이 그것이다(표1).⁵⁾

그 외에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淺見)문고본(이하 버클리본, 『섬용지』 1책)⁶⁾, 일본 이마니시문고(今西文庫)본(『이운지』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본(『예원지』 3책), 서강대학교도서관 소장본(『본리지』 1책), 한국은행 소장본(『섬용지』 1책) 등 특정 지만 소장된 경우와 후대의 요약판인 『임원경제지약초(林園經濟志略抄)』⁷⁾ 등이 있다. 또한 북한 인민대학습당에도 소장본이 있다는 전언이 있으나 그 규모를 확인할

3) 16지의 명칭과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리지』(곡식농사 백과), 『관후지』(야채·약초 백과), 『예원지』(화훼 백과), 『만학지』(과실·나무 백과), 『전공지』(의류 백과), 『위선지』(농업 기상·천문 백과), 『전어지』(목축·양봉·사냥·어로 백과), 『정조지』(술·음식 백과), 『섬용지』(건축·도구·일용품 백과), 『보양지』(건강 백과), 『인체지』(의학 백과), 『향례지』(의례 백과), 『유예지』(교양·기예 백과), 『이운지』(문화·예술 백과), 『상택지』(풍수 백과), 『예규지』(생활경제 백과).

4) 『林園經濟志目錄』 1책, 『本利志』 6책(권1-13), 『灌畦志』 1책(권1-2)은 필사자가 같다. 이 외에 『怡雲志』 1책(권5-6)(1934년 필사)이 있다.

5) 이 글의 필사본의 세부적 분석은 이 5종을 대상으로 한다.

6) 버클리본 『瞻用志』는 오사카본에는 없는 본이면서 서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오사카본에서 일실된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7) 『임원경제지』 일부 내용을 초략해놓은 것으로, 목차는 없으며 실과·초목류, 동물·어류, 치료용 음식과 약물제조법, 담장 쌓는 법, 우물 파는 법 등이 실려 있다. 초략자의 관심에 따라 일부를 필사한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수는 없다.

1965년부터 최근까지 『임원경제지』에 대한 연구는 이 사본들 중 거의 모두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았다.⁸⁾ 규장각본은 영인본이 나오기 전부터 학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전까지는 몇 가지 필사본만 전해지다가 서울대 고전간행회에서 『임원십육지』를 간행하면서(1966-1969년) 비로소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이 책은 총 6책에 걸쳐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고 결락본(『위선지』 권1-2)은 고대본으로 보완했다.

표1-『임원경제지』 소장처별 소장도서 현황

	오사카본	규장각본	고대본	연대본	국립본	권수	책수	비고
예언 16지 인(引)	○	×	×	×	×	·	1	규, 고, 국: 「본리지인만 있음
목록 (예언 포함)	×	○	○	×	○		1	버: 「인용서목」은 '오'의 일실본임
1. 본리지	×	○	○	×	○	13	6	서: 권7-9(1책)만 있음
2. 관휴지	○	○	○	○	○	4	1	
3. 예원지	○	○	○	×	×	5	2	
4. 만학지	○	○	○	○	×	5	2	
5. 전공지	○	○	○	○	×	5	2	오, 고, 연: 1책(권4-5) 결락
6. 위선지	○	○	○	×	×	4	2	규: 1책(권1·2) 결락; 오: 권 3·4 결락
7. 전어지	○	○	○	×	×	4	2	자: 권3·4만 있음
8. 정조지	○	○	○	○	×	7	4	오: 권5-7 결락; 고: 권1·2, 5·6 결락
9. 섬용지	○	○	○	×	×	4	2	오: 권1·2 결락; 버: 권1·2는 오사카본과 동일; 한: 권1·2
10. 보양지	○	○	○	○	×	8	3	오, 연: 권8 결락
11. 인제지	×	○	○	×	×	28	14	
12. 향례지	○	○	○	×	×	5	2	
13. 유예지	○	○	○	×	×	6	3	고: 권5·6 결락
14. 이운지	○	○	○	○	○	8	4	오: 권7·8 결락; 국: 권5·6만 있음; 연: 권7만 있음(백낙준본)
15. 상택지	○	○	○	×	×	2	1	
16. 예규지	○	○	○	×	×	5	2	
합계						113	54	

* 오: 오사카본, 규: 규장각본, 고: 고대본, 연: 연대본, 버: 버클리본, 서: 서강대본, 한: 한국은행본, 자: 지식산업사본

8) 成樂薰, 「서유구: 實生活의 革新」, 『한국의 인간상』 4(신구문화사, 1965), 432-441쪽이 최초의 확인된 연구이다. 이 중 몇 편은 '오사카본'을 참고했지만 규장각본을 선본(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최근에 나온 다음의 연구 및 번역서는 예외다. 안대회의 『산수간에 집을 짓고』는 '오사카본'을 대본으로 삼았고, 조창록의 『日本 大阪 中之島圖書館本 『林園經濟志』의 引과 例言』은 오사카본 서문들만을 번역 소개했으며,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책은 오사카본·고려대본·규장각본·서강대본과 교감하여 번역했다.

규장각본이 영인됨으로써 통행본이 되자 통행본을 곧 선본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여러 사본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사카본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연구자에게만 알려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영인본의 해제자인 홍이섭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과안(過眼)한 바로는 장중(莊重)히 필사한 1부가 모처에 있었으나, 다시 보이지 않고 국내 현존본으로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附屬圖書館)(원 규장각도서-당시의 전사인 듯-가 전 경성제국대학에 습장(襲藏) 사본 1부(현 고려대학교소장본은 이것의 전사-광복 전)가 유일한 것이다.

“서씨 가장(家藏) 원본(자연당실장(自然堂室藏)의 쾌지(擘紙)에 씌운 일본 오사카(大阪) 부립도서관 등에 수장되어 있다”(미키 사카에[三木榮] 저 『조선의학사와 질병사(朝鮮醫學史及疾病史)』 248면 1963년 일본 오사카 堺市刊)고도 한다.⁹⁾

홍이섭은 규장각본, 고려대본만 확인했고 오사카본은 미키 사카에의 말로 대신했다. 그는 규장각본이 원래 규장각도서이며, 규장각에서의 활동이 왕성했던 당시의 전사본이라 판단했다. 고대본은 광복 전에 규장각본을 필사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마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근거로 보인다. “본문(本文)을 따지는 일은 후일(後日)로 미루고”¹⁰⁾ 규장각본이 당시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규장각본의 권위는 이때부터 부여되었다.

한편 서울대에서 간행한 이 영인본은 인쇄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보경문화사(1983년)에서 다시 영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경문화사본은 그 후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보급된 영인본인데, 서울대 고전총서 『임원십육지』의 내용과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 영인상태를 개선시킨 차이밖에 없다.¹¹⁾ 역시 규장각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라 인정한 결과다.

9) 洪以燮, 「林園十六志 解題」, 『林園十六志』 1(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1966), 1쪽. 일부 한자는 독자를 위해 한글로 고쳤다.

10) 洪以燮, 위의 글, 1쪽.

11) 이후 출판사 민속원에서 보경문화사본과 같은 내용으로 판형만 키워 다시 영인본을 출간했다(2005년).

1. 규장각본 『임원경제지』를 활용한 논문의 오류

규장각본을 활용하여 서지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있었다. 노기춘의 연구가 그 하나인데, 『본리지』를 비롯한 농학 분야의 6지와 의학 분야의 『인제지』에 제시된 인용문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¹²⁾ 그는 여기서 「임원십육지 인용서목」(이하 「인용서목」)에 제시된 문헌이 총 832종이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번도 정확한 수치로 제시되지 못한 숫자여서 그 의미가 크다. 인용서목은 한 면 10줄에 10종을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품을 들여 문헌의 숫자를 세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채 연구자들은 대략의 숫자만 제시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기춘의 연구로 영인본이 출간된 지 40년 만에 인용문헌 수를 파악한 정보가 온전하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런 기초 자료를 구축하면서 노기춘은 본문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인용서목」의 문헌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했고, 각 문헌들이 각 지에서 모두 몇 회 인용되었는지를 조사했으며, 잘못 기록된 문헌을 바로잡기도 했다. 또한 각 지에서는 몇 종의 문헌이 몇 회씩 인용되었는지도 조사하여 주요 인용문헌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용문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 대본인 규장각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인용서목」에 있다. 규장각본에서는 필사본 한 장, 지금 식으로 2쪽에 해당하는 인용문헌이 빠져 있다. 빠져 있다기보다는 필사자가 빠트리고 넘어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규장각본으로 62면(보경문화사 영인본 31쪽)의 10번째 『편민서(便民書)』와 11번째 『전기방(傳奇方)』 사이의 문헌 20종이 누락된 것이다(사진1). 전체 면수도 앞뒤에 결번이 없어서 다른 사본과 대조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다. 빠진 20종 중에는 『증보도주공서(增補陶朱公書)』나 『사시유요(四時類要)』같이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노기춘의 연구에서

12) 노기춘,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韓國圖書館·情報學會, 2006), 375-403쪽; 盧基春,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2) -仁濟志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35輯(書誌學會, 2006), 231-2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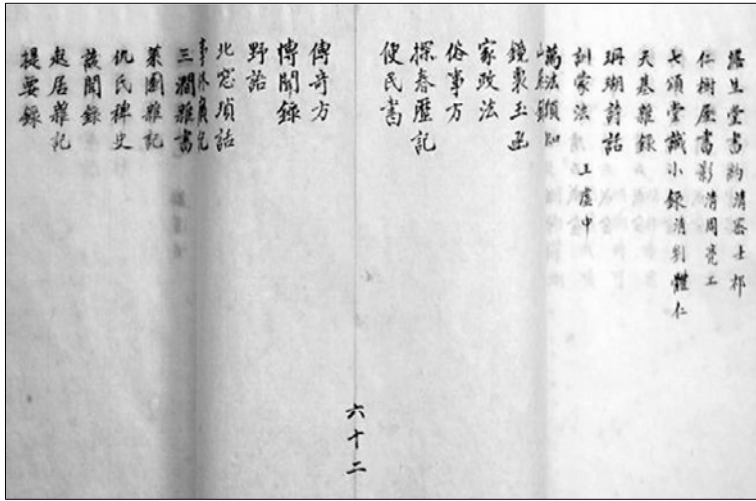


사진1-규장각본 『임원십육지 인용서목』에 나타난 오류의 예

는 이런 책이 모두 「인용서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통계결과를 뽑아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 공들여서 제시한 숫자들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규장각본의 「인용서목」의 오류는 이와 함께 잘못 옮긴 글자, 생략한 글자 등 총 101군데가 확인된다.¹³⁾ 이 중에는 원문을 고쳐 쓴 예도 있다. 앞 항목의 저자와 뒤 항목의 저자가 같을 경우, 다른 사본에서는 활동 시대와 저자명을 앞의 예와 같이 반복하여 실고 있다. 이에 반해 규장각본은 모두 ‘동상(同上, 위와 같음)’으로 처리한 것이다.

최근에 문명사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임원경제지』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심경호의 연구에는 교감과 관련한 옥의 티가 있다. 그는 「임원십육지 인용서목」 전문을 논문의 부록 표로 실는 매우 힘든 학술적 서비스를 제공했다.¹⁴⁾ 이 표에는 원문에서 분류한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 책의 성격에 따라 세심하게 나눈 학술적 성과가 들어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규장각본에 빠진 1장의 분량인 20종의 서책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101개나 되는 오류 중 대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실릴 수밖에 없었다.

13)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십육지 인용서목」, 앞의 책, 1485-1520쪽을 참조 바람.

14) 심경호, 「『임원경제지』의 박물 고증 방식과 문명사적 의의」,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소와당, 2010), 227-234쪽.



사진2-『임원경제지』 소주 기사의
인용문헌 표기 방식

있다. “닛째. 대목(大目)은 먼저 서적 자료로 채우고 끝에 서명을 메워둔다. 소주(小注)의 경우에는 먼저 서명을 표시한다.”¹⁶⁾ 여기서 “먼저 서명을 표시한다”로 번역한 원문은 “先標書名焉”이라고 적혀 있다.¹⁷⁾ 그런데 오사카본은 ‘名’과 ‘焉’ 사이에 “加匡” 두 글자가 더 있다. 이 글자를 넣어 옮기면 “먼저 서명을 표시하고 거기에 네모를 둘렀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두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일러두기는 풍석이 『임원경제지』 내에서 실제로 했던 편집 사례와 부합한다. 소주의 내용이 인용문이었을 때는 인용문헌명을 맨 앞에 쓰고 문헌명의 외곽을 네모로 둘렀기 때문이다(사진2 참조).

이 외에도 규장각본 원문을 영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규장각본 원본의 오류로 여긴 주석을 달기도 했다. “林園十六志例言”은 보경문화사 영인본에 ‘園十六志例言’으로 되어 있다. ‘林’ 자가 탈락되었거나, ‘林園’을 줄여서 쓴 듯하다. 본고에서는 「林園十六志例言」이라고 보완하여 표기한

틀린 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글자는 수정이 되었다.¹⁵⁾ 규장각본의 오류 수는 국립본(51개), 고대본(43개), 버클리본(19개)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많은 오류로는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책명과 저자명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이다. 또 ‘버클리본’ 「임원십육지 인용서목」에서는 경·사·자 삼부를 총 33개 분야로 세분하기도 했다. 이 버클리본을 반영했다면 책 분류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심경호는 규장각본의 원문에 의존하여 미진한 번역을 하기도 했다. 그의 논문에는 「임원십육지 서문」의 전문을 번역한 곳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15) 규장각본의 101개 오류 중 수정한 곳은 28곳이다.

16) “大目則先實以書，而尾填書名。若於小注，則先標書名焉。” 심경호, 앞의 논문, 167쪽.

17) 고대본과 국립본도 이렇게 적혀 있다.

다”¹⁸⁾는 주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영인본이 아닌 규장각본 원본에는 ‘林園十六志例言’이라고 온전히 적혀 있다. 영인과정에서 ‘林’ 자 위에 찍힌 도장을 지우는 과정에서 ‘林’도 함께 지워졌다.

2. 규장각본 오류의 형태

규장각본의 오류는 「인용서목」에 그치지 않고 필사본 전체에 걸쳐 있다. 이는 우선 원고 자체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서유구가 이용한 원고는 세 가지다. 판심에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10줄로 나뉘어 있는 것이 하나요, 판심의 글자는 없고 10줄로 나뉜 원고가 다른 하나요, 판심 글자도 없고 줄로 나뉘지도 않은 원고가 마지막 하나다. 마지막 유형의 원고는 그림이 많이 들어 있거나 한 줄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지에서 썼다. 오사카본, 고대본, 국립본에서는 대체로 이런 형식의 원고를 이용했다.

반면 규장각본은 판심에 ‘자연경실장’이란 글자가 없지는 않으나, 필사자에 따라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 책의 필사를 담당할 사람이 그 책 전체에 모두 자연경실장이라 쓰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1-4면 정도만 써놓아서 실수로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⁹⁾ 또한 10줄로 나뉜 원고를 일체 쓰지 않았다.²⁰⁾

규장각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면수(張次)를 잘못 기재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서문과 목차, 그리고 각 권의 면수는 각각 별개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서문이 총 2면, 그 뒤 목차가 총 27면이고, 권1이 총 42면이라면 서문은 1-2로, 목차는 다시 1-27로, 권1도 1-42로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규장각본은 이런 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난다. 첫 책인 권수(卷首)에는 「임원십육지에언(林園十六志例言)」 2면, 「임원십육지총목(林園十六志總目)」 27면, 「임원십육지인용서목(林園十六志引用書目)」 42면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원칙대로라면

18) 심경호, 앞의 논문, 162쪽 주3번.

19) 『인제지』 권7-8과 권13-14, 권28-29 전체, 권15의 1-4면; 『이운지』 권3의 17-19면, 권5의 1-4면, 54면 등에 있다.

20) 고대본도 일부 지에서는 10줄로 나뉜 원고를 쓰지 않았으며, 이런 원고에는 ‘自然經室藏’도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정조지』 권7, 『인제지』 권1-2, 권7-8, 권17-20 등이 그 예다.

각각 1면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규장각본에는 1-71까지 면수를 적어놓았다.²¹⁾

또 각 지의 권첫머리(卷頭)에는 지의 목차에 이어 권1을 수록하는데, 여기에서도 목차와 권1은 면수를 각각 별개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권1의 첫 면이 2면이나 3면으로 시작하는 사례도 있다.²²⁾ 마찬가지로 두세 권이 묶인 한 책에서도 권이 바뀌면 1면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²³⁾

또 다른 문제는 권말미(卷尾)에서 찾을 수 있다. 권말미에는 내용이 더 이상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권의 명칭과 권수를 기재한다. 이를 각각 권미제(卷尾題)와 권차(卷次)라 한다. 예를 들면 『예원지』 권1 권미에는 내용이 끝난 곳에서 한두 줄 또는 두세 줄을 띄우고 ‘예원지권제일(藝畹志卷第一)’이라 적어놓아야 한다(해당 면의 끝줄에 쓰기도 한다). 그러나 『예원지』 권1, 권2의 권말미에는 권미제와 권차가 없다.

한편 이와 비슷한 예로 『관휴지』 권1-4까지의 권말미 네 군데에는 ‘관휴지권제일종(灌畦志卷第一(또는 二, 三, 四終))’이라 적혀 있기도 하다. 『관휴지』의 특정 권이 ‘끝났다(終)’고 글자까지 친절하게 추가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필사본에는 이 ‘종(終)’ 자가 들어간 곳이 없다. 굳이 넣지 않아도 끝임을 알 수 있어서 『임원경제지』에서는 쓰지 않았다.²⁴⁾ 이 외에도 권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간혹 나온다.²⁵⁾

판심(版心)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임원경제지』 판심의 가장 완전한 형태는 위쪽부터 판심제(版心題), 권차, 대제목[大目], 장차, 필사처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다.²⁶⁾ 예를 들어 『이운지』 권3의 16면이라면 판심에는 위에서부터 ‘怡雲志卷三 山齋清供下 十六 自然經室藏’의 순으로 적는다. 여기서 ‘山齋清供下(산재청공 하편)’는 권3의 전체 주제인 ‘대제목’이다.

『임원경제지』 주요 사본 5종 중 오사카본은 이 중 필사처만 기재되어 있고, 연대본은 아무 기록이 없으며, 고대본과 국립본은 이 체제를 대체로

21)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林園十六志引用書目」에 한 면이 빠졌다. 다른 사본은 모두 총 72면이 된다.

22) 『관휴지』가 이런 예다.

23) 『전어지』가 그 예인데, 「전어지목차(佃漁志目次)」와 권1-2가 한 책으로 면수가 계속되고, 권3-4가 또 한 책으로 면수가 이어져 있다.

24) ‘終’ 자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25) 예를 들어 『본리지』 권2 권수의 권차가 권1로 되어 있다.

26) 한편 연대본과 국립본을 제외한 다른 사본에는 판심에 어미(魚尾)가 없다.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에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필사치는 대부분 없고, 나머지 네 요소도 모두 적은 것에서부터 전혀 적지 않은 것까지 들쭉날쭉이다.

가장 극단의 예가 위에서 예시한 『이운지』 권3과 권5에 보인다. 여기서는 같은 권에서도 다섯 요소가 모두 기재된 곳과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곳이 공존한다. 권3은 총 61면인데, 17-19면 세 곳만 다섯 요소를 모두 갖추었고 나머지는 전무하다. 권5는 총 67면인데, 1-4면과 54면 다섯 곳만 모두 갖추었고 나머지는 전무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필사자가 관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기로 해놓고 간혹 실수로 몇 군데서 전사 원본인 가장본의 기록을 옮긴 것이 아니겠는가.

3. 가장 부정확한 규장각본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만으로도 규장각본은 선본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규장각본이 선본의 가능성이 적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문의 부정확성에 있다. 다른 사본과의 대조와 인용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장각본에는 결자나 오자가 많다. 이로 인해 이 책이 한층 더 난해해졌다.

한 자가 빠지거나 틀린 예는 부지기수이고 두 자 이상의 결자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오자 중에서는 일반적인 필사본에서도 흔히 나타나듯이 글자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음이 같아 전혀 다른 뜻의 글자가 적히기도 하고, 뜻이 같으면서 음이 다른 한자가 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한자의 유사성 때문에 생길 법한 실수는 그나마 이해할 만하다. 음과 뜻과 형태가 전혀 다른 한자도 상당하다. 또한 앞의 글자를 반복해서 적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며, 글자의 순서를 바꾼 곳도 자주 나타난다. 고서 한 줄에 해당하는 글자(23-24자)를 고스란히 뛰어넘기도 했다.

심지어 기사 전체를 옮기지 않거나 표제어와 기사가 없는 예도 보인다. 한 면(2쪽) 전체를 건너뛴 사례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²⁷⁾ 『본리지』에서는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의 기사 전체(103자)를 누락했다.²⁸⁾ 『정조

27) 『林園十六志引用書目』, 62면.

28) 『본리지』 권4 「농지가꾸기」 “밭갈이, 씨레질, 고무래질” ‘사람의 힘으로 쟁기질하는 법’,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소와당, 2008), 127-128쪽.

지』는 이보다 더 심하다. 『정조지』 권4에는 14면(28쪽)에 달하는 양으로, 4,938자를 누락했다. 『정조지』 권4 전체는 「채소 음식」을 소개했는데, 소제목이 총 10개다.²⁹⁾ 이 중 6번째 소제목 “저채”의 앞부분 표제어 5개(총 10개)와 10번째 소제목 “소채”의 표제어 1개(총 7개)만 남아 있고, 69개 표제어와 이에 배속된 기사가 몽땅 빠져 있다(표2). 이런 상황은 고대본도 동일하다. 그러나 오사카본과 연대본은 다른 두 본에 누락된 부분이 남아 있다.

『본리지』의 경우도 권5와 권6에서 오류가 많은데,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다. 권5에 67군데, 권6에 53군데 정도 보인다.³⁰⁾

최근 발표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통행본(규장각본) 『임원경제지』와 비교 연구를 시도했다. 그 결과 규장각본에 필사 오류에 해당하는 여러 오류가 마치 『임원경제지』 전체의 오류인 양 오해하게 했다. 이 논문에서는 『난호어목지』에서 『전어지』로 정리되는 과정에 ‘누락’, ‘오기’, ‘삭제’, ‘잘못 추가’, ‘중복 추가’, ‘고자(古字)’ 등 총 63개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³¹⁾ 그러나 63개에는 분석 대상인 규장각본의 필사 오류일 뿐 다른 필사본(오사카본, 고대본)은 『난호어목지』와 동일한 글자가 대부분이었다. 잘못된 저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임원경제지』의 농업 백과사전인 『본리지』에는 정교한 수차 4종을 소개했다(권13). 용미차(龍尾車)·옥형차(玉衡車)·항승차(恒升車)·자승차(自升車)가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이런 수차를 제작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매우 상세한 설명으로 소개하고 있어 그 내용만 보고도 거의

표2-『정조지』 권4(규장각본, 고대본) 누락 부분

순서	소제목	표제어 수	글자 수	비고
1	저채	5	303	10개 중 5개
2	자잡채	31	2,272	전체
3	외증채	13	904	전체
4	유전채	14	819	전체
5	소채	6	640	7개 중 6개
합계		69	4,938	

29)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앞의 책, 866-872쪽.

30)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앞의 책, 175-438쪽.

31) 한미경,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연구」,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333-334쪽.

그대로 제작이 가능할 정도다. 따라서 기구 제작 매뉴얼의 설명에 사소한 내용 오류가 있어도 수차 제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원경제지』 필사본들에는 수차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지 않은 필사 오류들이 보인다. 현존하는 필사본 3종 모두 잘못된 곳이 용미차 5곳, 옥형차 6곳, 향승차 3곳, 자승차 13곳으로 총 27곳에 오류가 보인다.³²⁾ 오류들은 대부분 오자이거나 글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수차 관련 부분에는 그림이 여러 개 실려 있기도 한데, 이 그림들에도 여러 곳에서 오류가 보인다. 위치를 표기하는 기호가 잘못 적혀 있거나 아예 없거나 다른 곳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문을 온전하게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 용미차·옥형차·향승차의 원본인 『태서수법(泰西水法)』이나 자승차 원본인 『자승차도해(自升車圖解)』와의 대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듯 책의 서두에 853종의 인용서목을 제시하고 있는 『임원경제지』 교감을 위해서는 필사본들끼리의 대조는 물론이고 원출전과의 비교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³³⁾

4. 규장각본 『임원경제지』를 활용한 번역의 오류

임원경제연구소에서 규장각본을 토대로 번역한 결과 오역으로 이어진 사례 하나를 살펴본다. 다음은 초역본 『관휴지』 권2에 나오는 원문과 주석이다.

乾苔「『本草綱目』此海苔也。乾之爲脯。張華博物志云，石髮生海中者，長尺餘大小如韭葉。以肉雜蒸食極美。張勃吳錄云：‘(陸)離生海水中，正青似亂①髮，如韭薄，如竹菜，明瑩滑澤，色深青，味甘美。’³⁴⁾乃海苔也。『東醫寶鑑』。一名甘苔，一名青苔。可作脯食之。³⁵⁾ ……

常思苔

「又：生海中。葉長過尺³⁶⁾，而挾如韭，薄如竹筴。明瑩滑澤，色深青，味甘美。³⁷⁾」³⁸⁾(이 규필 초역본)

32)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3(소와당, 2009), 369-481쪽.

33) 표점의 중요성은 앞의 발표에서 충분히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34) 오사카본에는 ‘如韭薄，如竹菜，明瑩滑澤，色深青，味甘美.’ 16자가 빠져 있다.

35) 乃 이하는 오사카본을 근거로 보충해 넣었다.

36) 過尺: 『자산어보』에 의거 보충하였다.

37) 이 부분은 위의 〈甘苔〉와 뒤섞인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일단 그대로 번역해두고, 참고와 고증을 기다린다.

38) 『관휴지』 권2 「채소류」 “부록: 바닷가와 바다의 푸성귀” ‘파래’, ‘상사태’.

역자는 규장각본과 오사카본 두 필사본과 『자산어보』를 대조한 결과 주석 4개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중 3개는 불필요하다. 고려대본과 교감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사카본에는 이 부분에 매우 복잡한 편집 지시가 여러 군데 적혀 있는데, 고려대본은 오사카본의 편집 지시를 그대로 반영했다. 오사카본의 교정 사항을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규장각본의 결정적인 실수는 ① 부분에서 한 줄을 건너뛰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빠트린 글자는 다음과 같이 총 33자다.

髮,乃海苔也. 東醫寶鑑:一名甘苔,一名靑苔. 可作脯食之.」常思苔「茲山魚譜:生海中,葉(표점은 필자가 찍음)

한 줄이 통째로 빠진 규장각본의 실수를 미처 간과하지 못해 필요하지 않는 교감 주석이 추가되었고, 오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순서였다.

이 부분의 교감결과를 반영하여 원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원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밑줄 부분은 규장각본에서 빠트린 글자다. 번역은 생략한다.

乾苔「本草綱目:此海苔也. 乾之爲脯. 張華博物志云:“石髮生海中者,長尺餘,大小如非葉. 以肉雜蒸食,極美.” 張勃吳錄云:“(蔭陸)蘼生海水中,正靑似亂髮,乃海苔也. 東醫寶鑑:一名甘苔,一名靑苔. 可作脯食之.」常思苔「茲山魚譜:生海中,葉長狹如非,薄如竹筴. 明瑩滑澤,色深靑,味甘美.³⁹⁾

규장각본 이 부분에서 생긴 필사 오류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년 전에 쓴 나의 석사논문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정약전·이칭의 저술이자 해양 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의 해양 박물학적 성격을 논한 논문에서 『자산어보』가 당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던 중 『관휴지』에 『자산어보』가 수록된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에는 규장각본을 영인한 책을 보았기 때문에 ‘상사태’가 빠진 줄도 모르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바다에서 나는 채소를 설명하면서 12종 중 5종을 『자산어보』에서 인용⁴⁰⁾했다고 적은 것이다. 빠진 ‘상사태’를 포함하면

39) 『관휴지』 권2, 위와 같은 곳.

40) 정명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12종 중 5종”은 “13종 중 6종”으로 바뀌어야 한다.

영인본의 해제자 홍이섭(洪以燮, 1914-1974)은 “국내 현존본으로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장 사본 1부가 유일한 것”이라며 “그 소장본을 영인함에 있어서 본문을 따지는 일은 후일로 미루고, 우선 근세 영(英)·정(正)·순(純) 3대에 걸쳐 위흥(蔚興, 성하게 일어남)하였던 실학의 일모(一貌)를 일상의 궤측(軌側)에서 손쉬웁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혔다.⁴¹⁾ 이렇게 본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서울대 소장본을 고대본보다 훨씬 앞서 필사된 본으로 평가한 데에는 고대본보다 정사상태가 더 좋은 선본(善本)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때의 오판은 최근까지도 비판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제까지 다룬 교감의 문제는 중국의 경우 ‘교감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성립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13경의 대표적 주석서인 『십삼경주소』만 해도 엄청난 양의 주석도 주석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치밀한 교감 기록이 깨알같이 붙어 있다. 중국에서 교감학은, 학자라면 텍스트를 접근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도구 같은 것이었다. 이런 학풍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제민요술』, 『농정전서』, 『천공개물』 같은 기술서가 활자화되면 여러 판본이나 사본과 비교한 교감 주석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진다.⁴²⁾ 이렇게 정본을 만든 뒤에 번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국 학계의 통례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 역사상 판본을 완전하게 정리한 뒤 번역에 임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출간된 여러 번역서는 영인본에 교감 주석을 부기하는 데까지만 진행했다. 농서 국역서 시리즈를 출간하는 농업진흥청 번역서도 영인한 원문만 제시했을 뿐 면밀한 교감의 단계는 생략하고 있다. 한문 번역자들이 교감을 하지 않고 번역에 바로 임하는 태도는 매우 당연한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3쪽.

41) 洪以燮, 「林園十六志 解題」, 『서울대 고전총서 林園十六志』 1(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1966), 1쪽.

42) 예를 들어 賈思勰 著, 繆啓愉 校釋, 『齊民要術校釋』(中國農業出版社, 1998); 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上海古籍出版社, 1979);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世界書局, 1986) 등이다.

Ⅲ. 표절 증거 노출과 진본 진위 논란

1. 번역 원고 표절 증거의 노출

이 같은 ‘교감 불감증’은 번역 원고의 표절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에 완역, 출간된 김일권 역주본 『임원경제지 위선지(魏鮮志)』⁴³⁾가 그 단적인 예다. 이 책에서는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여러 곳에서 원문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번역되었다. 이중 책명처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번역되는 사례도 자주 보였는데, 이를 몇 개 소개한다. 표3에서 ①·⑤·⑥·⑦·⑨는 한자의 유사함 때문에, ②는 동음 때문에, ③은 글자 순서 착각 때문에, ④·⑧은 독음 실수 때문에 빚어진 오류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오류의 내용과 위치와 빈도는 공개롭게도 임원경제연구소에서 2007년에 마친 『위선지』 초벌 번역 원고 오류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표3에 소개된 오류는 원본에는 모두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임원경제연구소 역자가 입력이나 독음을 잘못된 결과였다. 이 오류들은 뒤에 5인이

표3-『임원경제지 위선지』의 책명 오류 사례⁴⁴⁾

번호	오류	원본	출현 빈도	글자 수	글자 수 계산 근거
①	계사류점(戒事類占)	웅사류점(戎事類占)	2곳 전부	8	4×2
②	무비지(無備志)	무비지(武備志)	346곳 중 4곳	1,038	3×346
③	월통금고(月通今考)	월령통고(月令通考)	30곳 중 1곳	120	4×30
④	근사록(近思錄)	근이록(近異錄)	1곳	3	3×1
⑤	농래요람(農來要覽)	농상요람(農桑要覽)	1곳	4	4×1
⑥	기력찰요(紀曆撮要)	기력찰요(紀歷撮要)	26곳 중 7곳	104	4×26
⑦	기력찰요(紀歷撮要)		26곳 중 3곳		
⑧	상서선기금	상서선기검(尙書璇璣珍)	1곳	5	5×1
⑨	사광점(師曠占)	사광점(師曠占)	15곳 중 2곳	45	3×15
합계				1,327	

43) 서유구 지음,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1-2(소와당, 2011).

44) 이 표는 『위선지』 역자 민철기가 2003년 3월 번역 개시 후 2007년 4월까지 임원경제연구소 역자 교류용 홈페이지(keytext.org) 「역회게시판」에 공동고열을 위해 올린 『위선지』 초역전산파일에 근거한다.

참여한 교열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수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권 역주본 『임원경제지 위선지』 1-2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가 드러나 있다. 원본과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했다면 서명을 잘못 적는 결정적 오류는 거의 생길 수 없다. 더군다나 천문학 전문가로 자처하는 역주자가 『무비지』, 『기력촬요』, 『용사류집』 같은 서명 표기 실수가 이렇게 잦았다는 점은 이미 번역된 다른 원고를 참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원문 대조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일권 역주본이 만약 임원경제연구소 초역본을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원고를 작성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임원경제연구소 초역본과 표3에서 보여준 오류가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나⁴⁵⁾ 가장 단순한 조건에서 구해보기로 한다. 표3에서 고려한 샘플의 글자 수는 총 1,327자였고 이 중 24자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연구소본의 입력 오류 확률은 24/1,327이다. 즉, 1,327자가 배열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중 특정 위치에서 24자의 오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정확히 반복할 확률은 $(24/1327)^{24}(1303/1327)^{1303}$ 이다.⁴⁶⁾ 이 값을 계산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다. 즉, 소수 5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수점 이하에 0을 52개 쓴 뒤에야 비로소 0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는 10조 분의 1(즉, 10^{-13})을 4회 곱한 숫자에 가깝다. 10조 분의 1이라는 확률도 0에 가까운데, 10^{52} 분의 1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 확률은 0에 가깝다. 이 값은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므로 실제로는 이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책명 이외의 한자에 대해서도 교감을 하지 않은 예들이 매우 많이 보이지만, 나머지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⁴⁷⁾

45) 여러 요소를 고려할수록 확률은 더 낮아진다. 예를 들면 ‘武備志’의 ‘武’ 자를 ‘無’ 자가 아닌 다른 ‘무’ 자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으니 ‘무’라는 한자 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위선지』 원문 전체에서 일부가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에 글자 대상을 『위선지』 전체 글자 수로 할 수도 있다.

46) 1,327자의 배열 중 24자에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24/1,327를 24회 곱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303자는 정확하게 입력되었으므로, 각각의 글자를 정확하게 입력할 확률은 $1-(24/1,327)$, 즉 $1,303/1,327$ 이 된다. 이 확률을 1,303회 곱해야 1,303자를 정확히 입력할 확률이 된다. 이 두 사건은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한 확률 각각을 곱해야 한다. 계산은 장우석 선생(숙명여고 수학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47) 김일권 역주본 『임원경제지 위선지』 1-2를 표절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이 외에도 번역,

2. 진본 진위 논란 초래

정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진본의 진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존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손암(巽庵) 정약전(丁若銓, 1758-1816)과 정약용의 제자 이청(李晴)의 공동저술이다. 정약전은 흑산도 근해의 해양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어족에 대한 설명을 적었고, 이청은 여기에 ‘청안(晴案)’이라는 ‘안설’을 덧붙여 문헌을 통한 고증 부분을 보강했다. 이런 책의 구조를 보면, 흑산도 유배 시절에 쓴 『자산어보』 초고를 손암이 다산에게 보내자 다산의 문하에 있던 이청이 ‘안설’로 책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현존본 『자산어보』의 저술과정에 대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청이 보완한 부분이 다시 손암에게 보내졌고 손암이 이청의 원고를 반영하여 책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자신이 소장한 『자산어보』 필사본이 정약전이 쓴 진본이라는 절대적 확신이 있었다. 진기홍(1914-2010)의 소장본이 바로 그 예다. 『자산어보』는 현재 8개의 필사본이 남아 있고 진기홍본을 토대로 출간한 판본(『호남 문화연구 1』에 수록. 이후 ‘호남본’으로 약칭)은 그중 하나다. 필자가 8종의 필사본을 대조한 결과 ‘호남본’은 오류가 101군데로 나타나 44회 오류가 있는 ‘서강대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표4).

표4-『자산어보』 사본별 정오 대조 작업결과⁴⁸⁾

분류 \ 사본	정씨본 ⁴⁹⁾	가람본	서강본	일석본	상백본	부경본	국립본	호남본
인류(鱗類, 권1)	46	35	7	42	31	31	29	31
무린류(無鱗類, 권2)	56	35	17	51	38	37	33	38
개류(介類, 권2)	33	40	13	39	29	29	28	27
잡류(雜類, 권3)	18	33	7	19	10	11	12	12
오류 총수	153	143	44	151	108	108	102	101

원문, 표점, 주석 등에서 임원경제연구소의 초역본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상론은 생략한다.

48) 정명현, 앞의 논문(2002), 10쪽.

49) 필사본 8종의 약칭과 원본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정씨본: 丁若銓 지음, 鄭文基 옮김, 『茲山魚譜』(지식산업사, 1977), 165-226쪽; 가람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古639.2 J466j; 서강본: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古書 자51; 일석본: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597-0925 J466jp v.1/3; 상백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상백古 597.

뒤에 입수한 진기홍본을 확인한 결과 ‘호남본’과 대부분 오류가 일치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는 ‘財’를 ‘則’으로, ‘補’를 ‘稱’으로, ‘氣’를 ‘魚’로, ‘魚’를 ‘鮮’으로, ‘而’를 ‘所’로 쓰는 등 손암 자신의 글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면 저자의 학문 수준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소장자는 자신이 행한 정약전의 서찰 등 진적과의 엄정한 감정을 통해 자신의 소장본이 정약전의 진본임을 의심하지 않았다.⁵⁰⁾ 필자가 『자산어보』 교감본을 제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진기홍의 주장에 더 이상의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진본 논란은 필사본들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IV. 정본화가 시급한 과학과 기술 문헌

1. 신경준 문집의 정본화

『임원경제지』 외에도 정본화가 시급한 과학과 기술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저술은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⁵¹⁾ 『여암전서(旅菴全書)』 2책에는 이전에 두 차례 간행된 저술을 합하고, 여기서 빠진 저술 및 연보 등이 추가되었다. 세 차례 간행된 여암의 문집 중에는 여암의 저술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어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여암전서』에 수록된 「군현지제(郡縣之制)」는 유형원의 저술이며, 「장자변해(莊子辨解)」는 한원진의 저술이다. 「수차도설(水車圖說)」은 명말 서광계가 편찬한 『농정전서』의 「태수수법(泰西水法) 상·하」(권19-20)를 그대로 전재했다. 또한 『여암전서』에 수록된 자료들 중 여암의 조부 신선부(申善傳)의 저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0925-J466j; 부경본: 부경대 중앙도서관 水1641; 국립본: 국립중앙도서관 古753-1; 호남본: 『湖南文化研究』 창간호(호남문화연구소, 1963), 1-57쪽.

50) 관련 내용은 최영철, 「정약전의 ‘자산어보’ 진본 미스터리: ‘혹산도 유배자’ 혼 담긴 탐구일지, 200년 만에 빛 보나」, 『新東亞』 49권 7호 통권562호(東亞日報社, 2006년 7월호), 358-368쪽을 참조 바람.

51) 1910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旅菴遺稿』, 1939년 鄭寅普가 校註하여 光文社에서 활자본으로 발간한 『旅菴全書』, 1976년 정구복 교수의 해제에 의해 경인문화사에서 영인, 간행된 『旅菴全書』 2권이 그것이다.

간행 시 여암의 후손 집에 보관된 자료들을 총망라해 수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텍스트 비판의 결여로 반계의 균현제 개혁론을 여암의 개혁론으로 오해하기도 하고⁵²⁾, 「수차도설」의 다양한 분해도를 기초로 여암을 과학자로도 손색없는 인물이라고 잘못 평가하기도 했다.⁵³⁾ 그러므로 『여암전서』 2책에 실린 글들 중 신경준의 글과 아닌 글을 가려 여암의 글만을 정본화한 뒤에야 그의 과학기술론을 제대로 분석하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2. 『택리지』의 정본화

『택리지(擇里志)』는 18세기 중엽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지리서다. 백과사전식 항목 서술로 구성된 이전의 지리지와는 달리, 저자의 독자적인 주제 의식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로 조선후기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다. 『택리지』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지리서일 뿐 아니라 조선의 역사·정치·사회·경제 상황까지 포괄한 중요 사료이기도 하다. 또한 18세기 이후 민간의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사되면서 폭넓게 읽힌 텍스트이다. 『택리지』는 인쇄된 적이 없으면서도 각종 사본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명칭도 ‘택리지’ 외에 팔역지(八域志)·가거지(可居志)·팔역가거지(八域可居志)·산수록(山水錄)·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진유승람(震維勝覽)·총화(總貨)·동국총화록(東國總貨錄)·팔역가거처(八域可居處)·사대부가거처(士大夫可居處)·길지총론(吉地總論)·동악소관(東嶽小管)·팔역기문(八域紀聞)·박종지(博綜誌)·형가요람(形家要覽)·청화산인팔역지초(靑華山人八域志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수십 종의 사본들이 도서관, 박물관 등에 전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도서관에는 한글본도 남아 있다. 『택리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리지』는 전통적인 지리지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혁신적인 체제와 내용을 지닌다. 서술 방식에서도 사실 나열에서 한 단계

52) 이종범, 「신경준-국토와 도로의 개념을 발견한 실학자」, 『역사비평』 62(2003).

53) 강신항, 「신경준-국학정신의 온상」, 『한국의 인간상』 4권(신구문화사, 1965).

54) 신경준 저술의 정본화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고동환 교수(KAIST)의 협조를 받았다.

나아가 저자의 안목에 의해 포착된 특징적인 지역의 모습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동시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리학사에서도 보기 힘든 것으로 ‘근대적’ 지지(地誌)의 성격을 보여준다.

둘째, 전국을 지역별로 서술한 지지임과 동시에 사대부로서 살 만한 곳을 선택하는 주제로 계통적 접근을 시도하여 실용성에 중점을 둔 ‘실학적’ 지리서다. 이 책은 전국을 답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대한 저자의 예리한 관찰결과와 흥미 있는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셋째, 산지, 하천, 평야, 해안,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수록되어 당대 자연과학(환경학)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1881년 일본은 조선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택리지』를 번역·출판했고, 3년 후 중국에서는 이 일역본을 기초로 하여 한문으로 중역하여 출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조선광문회에서 처음으로 활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 본은 당시 남아 있는 이본들을 교감한 것도 아니고 누락된 부분도 많다. 현재 일부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한 종류의 사본을 토대로 한 것이고 교감이나 표점, 역주 등이 미흡하다. 따라서 현존하는 수십 종의 사본을 토대로 이중환의 초고본과 이후 필사본들의 계통을 확립하고 정본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다.⁵⁵⁾

3. 『의방유취』의 정본화

『의방유취(醫方類聚)』는 세종 때 365권으로 편찬되었고 성종 때(1477년) 266권으로 30질만 간행된 조선 최대 의서다. 150여 종의 전통의학 임상처방 자료 및 관련 문헌 자료를 채록했으며, 글자 수는 950여 만 자로⁵⁶⁾ 『동의보감』의 10배에 이른다. 처방 수는 5만 중 이상 『향약집성방』 1만 700종, 『동의보감』 6,000종, 『임원경제지 인제지』 1만 2,000종, 단방 포함이다. 153종의 중국 의서와 한국 의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 중 일실된 의서도 40종이나 되어 고의서 복원에 매우 중요하다.

55) 『택리지』의 정본화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오상학 교수(제주대)의 협조를 받았다.

56) 胡森, 「『醫方類聚』의 文獻價値에 관한 管見」,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14권 2호(통권 23호)(2008), 152쪽.

조선에서 간행된 『의방유취』는 모두 소실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1질을 노획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 이것이 12권 12책은 결본인 채로 일본 궁내성(宮内省) 도서료(圖書寮)에 254권 252책 보관되어 있다.⁵⁷⁾

가토가 가져간 성종본 『의방유취』는 일본 센다이(仙臺) 의사 구토(工藤)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되었다가, 그 후 에도시대 의관 기타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寛)가 10년이란 시간을 들여 목활자로 재간행했다(1861년). 총 권수 266권 264책으로, 약탈 시 결본이던 12책을 보충했다.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규)을 맺을 때 일본이 이 판본 2질을 조선에 예물로 기증했다(1876년). 이때 받은 2질 중 1질만 현재 연세대에서 소장 중이다.

이 연대본을 현 경희대학교 한의대 전신인 동양의전 학생들이 1965년에 배긴 필사본이 전 11책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북한 동의과학원에서 교열 감수한 필사본이 여강출판사에 의해 영인되어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서는 근년에 성종대 간행본 1권을 발견하여 보관 중이다(보물 제1234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문헌 사이트에 『의방유취』 전 내용을 올려 놓았는데 일본에서 재간행한 본을 다시 중국에서 간행한 본으로 보인다.

『의방유취』는 방대한 의서 수집과 분류로 『동의보감』 등 조선 의서의 모태가 되었음에도 국내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이는 방대한 양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화를 통한 정보화가 절실하다. 방대한 정보를 조직적·구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표점과 교감본 확립이 필수과정인 것이다.

고의서 40종 이상이 『의방유취』를 통해 복원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화 과정에서 기존 의서의 영향관계나 발전계통을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성종본의 소실과 일본으로 유출, 복간본의 유입, 필사본의 시중 유행으로 원본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면 번역을 보다 쉽게 완료할 수 있음은 물론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 자료 확보와 활용이 늘랄 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최근 『임원경제지 인제지』 원문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병증과 ‘약물’ 사이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성과에서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⁵⁸⁾

57) 신순식·최환수, 「『醫方類聚』에 대한 板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3집 제1호(통권 제3호)(1997), 5쪽.

V. 맺음말

과학기술 문헌의 정본화 과정을 무시한 결과 이처럼 논문과 번역 결과물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잘못된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결과 논문의 근간이 되는 주된 논거의 신뢰도가 적지 않게 떨어졌고, 번역에서는 오역이나 결역이 초래되었다. 심지어 표절 증거를 그대로 남겨놓기도 했으며, 후대의 필사본을 원저자의 진본이라고 주장해도 이에 반론을 제기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도 못했다.

서유구는 교감함이 없는 조선 학계를 비판함과 동시에 『임원경제지』에 는 자신이 인용한 문헌은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⁵⁹⁾ 교감하지 않은 책은 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풍석의 논법으로 말하면 전통 과학기술 문헌의 정본화 없는 연구와 번역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원경제지』는 총 252만여 자의 거질인 데다가 필사본도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대교(對校)만 완료하기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853종의 인용문헌까지 추적하여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는 타교(他校)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므로 정본화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매우 많다. 2003년부터 번역과 동시에 『임원경제지』 원문을 가공하던 임원경제연구소도 10년이 다 되도록 정본화 하나조차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초기에는 교감이나 정본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역자를 일일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초역을 거의 대부분 마친 현재 역자들은 이미 원문과 번역 원고를 연구소에 제출한 상태여서 다시 역자들에게 정본화를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정예의 인력이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교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완역은 고사하고 정본화조차 이루기는 지난하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다양한 판본과 필사본이 존재했던 전통시대의 과학과 기술 문헌의 정본화는 조직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58) 『의방유취』의 정본화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전종욱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의 협조를 받았다. 『인제지』 처방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전종욱, 「인제지 해제」,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옮기고 씀, 앞의 책, 1118-1127쪽을 참조 바람.

59) 서유구가 『임원경제지』 저술을 위해 쏟았던 교감과정의 일부는 정명현, 앞의 글(2012), 109-113쪽을 참조 바람.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한국 전통 문화의 국제적 인식 고양을 위해서 정본화는 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 「신경준-국학정신의 온상」. 『한국의 인간상』 4, 신구문화사, 1965.
- 盧基春,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 韓國圖書館·情報學會, 2006.
- _____,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2)-仁濟志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35輯, 書誌學會, 2006.
- 徐有渠, 『서울대 고전총서 林園十六志』 1-6,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6.
- _____, 『林園經濟志』 1-5, 保景文化社, 1983.
- _____, 『林園十六志』 1-5, 민속원, 2005.
- _____, 『林園經濟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6565 00(52책).
- _____, 『林園經濟志』.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대학원 E1 A34 0-52(49책).
- _____, 『十六志』.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고서(I) 031 십륙지-2-11(10책).
- _____, 『林園十六志』. 오사카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大阪中之島 府立圖書館), 韓九六四(31책).
- _____, 『林園經濟志』. 국립중앙도서관, 古031-6(9책).
- _____, 《楓石全集》『楓石鼓篋集』. 『韓國文集叢刊』 288, 民族文化推進會, 2002.
- 서유구 지음,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1-2. 소와당, 2011.
- 서유구 지음, 안대회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 서유구 지음, 정명현·김정기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2. 소와당, 2008.
- _____, 『임원경제지 본리지』 3. 소와당, 2009.
-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 成樂薰, 「서유구: 實生活의 革新」. 『한국의 인간상』 4, 신구문화사, 1965.
- 申景濬, 『旅菴全書』 1-2. 景仁文化社, 1976.
- 신순식·최환수, 「『醫方類聚』에 대한 板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3집 제1호 (통권 제3호), 1997.
- 심경호, 「『임원경제지』의 박물 고증 방식과 문명사적 의미」.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소와당, 2010.
- 이종범, 「신경준-국토와 도로의 개념을 발견한 실학자」. 『역사비평』 62, 역사비평사, 2003.
- 정명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丁若銓, 『茲山魚譜』, 鄭文基 옮김, 『茲山魚譜』. 지식산업사, 1977, 165-226쪽.

- 丁若銓·이철, 『茲山魚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 古639.2 J466j.
- _____, 『茲山魚譜』.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古書 자51.
- _____, 『茲山魚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597-0925 J466jp v.1/3.
- _____, 『茲山魚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상백 古 597.0925-J466j.
- _____, 『茲山魚譜』. 부경대학교 중앙도서관 水1641.
- _____, 『茲山魚譜』. 국립중앙도서관 古753-1.
- _____, 『茲山魚譜』. 『湖南文化研究』 창간호, 호남문화연구소, 1963, 1-57쪽.
- 조창록, 「日本 大阪 中之島圖書館本 『林園經濟志』의 引과 例言」. 『韓國實學研究』, 한국실학학회, 2005.
- 최영철, 「정약전의 ‘자산어보’ 진본 미스터리: ‘흑산도 유배지’ 흔 담긴 탐구일지, 200년 만에 빛 보나」. 『新東亞』 49권 7호 통권562호, 東亞日報社, 2006년 7월호.
- 한미경,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 연구」. 『書誌學研究』 제47집, 2010.
- 胡森, 「『醫方類聚』의 文獻價値에 관한 管見」.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14권 2호(통권 23호), 2008.
- 洪以燮, 「林園十六志 解題」. 『서울대 고전총서 林園十六志』 1,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6.
- 賈思勰 著, 繆啓愉 校釋, 『齊民要術校釋』. 中國農業出版社, 1998.
- 徐光啓 撰, 石聲漢 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世界書局, 1986.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전통 과학과 기술 문헌 연구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정본화(定本化)의 측면에서 살피고, 정본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다. 특히 서유구(徐有榘)의 저술인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필사본들의 현황과 성격을 살피면서 선본을 잘못 고르고 정본화를 하지 않아 생기는 논문 연구와 번역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930년대 초반에 필사된 ‘규장각본’ 『임원경제지』는 영인되면서 선본으로서의 통행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본은 필사본 중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본이었다. 책의 형식이 필사자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은 물론, 누락되거나 중복된 글자, 틀린 글자 등 무수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 문헌의 정본화 과정을 무시한 결과 논문과 번역 결과물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임원경제지』 연구의 경우, 잘못된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결과 논문의 근간이 되는 주된 논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번역에서는 오역이나 결역이 초래되었으며, 심지어 번역서에 표절 증거를 그대로 남겨놓기도 했다. 『자산어보』 연구에서는 후대의 필사본을 가지고 원저자의 진본이라 주장해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증거를 찾지도 못했다.

전통시대의 과학과 기술 문헌의 정본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집단의 유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국제적 인식 고양을 위해 정본화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전통 과학과 기술 문헌(traditional works on science and technology), 정본화(a text exemplification), 『임원경제지』(*Imwon-kyungje-ji*), 선본(善本, well transmitted copy)

